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이
이후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정 춘 식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이
이후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진 미 정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정 춘 식

정춘식의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 유무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시기의 우울수준과 공격성 정도의 변화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의 공백이 중·고등학교 시기의 정서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방과후 아동돌봄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돌봄의 부재가 이후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 유무에 따라 정서발달, 특히 우울과 공격성 변화의 궤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 살펴본다. 둘째, 가구소득이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자기보호 경험 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1,4,7차년도에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위해 PASW 18.0을 사용하였으며, 발달 궤적 파악을 위한 잠재성장모형 검증을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우울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격성의 변화는 같은 기간 동안 선형적인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이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시기와 고등학교 시기 우울수준의 변화율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이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에 비해 유의

미하게 높았지만, 감소율은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구소득은 두 집단 모두에 있어서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초기 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 돌봄정책이 정책의 대상을 저소득층에 집중시키는 성격을 넘어서, 소득과 관계없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모두 반영하는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돌봄을 제공받는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을 고려하고 돌봄 대상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돌봄의 목적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표집 크기의 문제로 방과후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세부유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었다는 것과 우울·공격성 척도를 세분화 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소득층 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상황으로 아동학대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졌던 아동방임을 대다수 가족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 아동의 자기보호로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가족 정책적 접근의 필요를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방과후, 신사회적 위험, 자기보호아동, 잠재성장모형, 정서발달(우울, 공격성), 청소년

학번: 2012-21521

목 차

I . 서론	1
II . 선행연구 고찰	6
1. 신사회적 위험과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	6
2.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8
1) 우울의 발달	9
2) 공격성의 발달	10
3) 방임/자기보호와 정서발달	12
III . 연구문제	14
IV . 연구방법	15
1. 분석자료	15
2. 변수와 측정도구	16
3. 자료분석 및 연구모형	17
V . 연구결과	18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
2.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방과후 자기보호경험	19
3.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종단적 변화	20
4. 방과후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변화	22
5. 방과후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라 가구소득이 아동·청소년의 우울 과 공격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26

VI. 결론 및 논의	29
참고문헌	34
부록	40
Abstract	45

표 목 차

[표1]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별 대상	7
[표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차년도)	18
[표3] 소득수준에 따른 방과후 자기보호경험	19
[표4] 소득수준에 따른 방과후 집에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방과후 시간 사용	19
[표5] 아동·청소년 우울수준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20
[표6] 아동·청소년 공격성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21
[표7]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수준 변화에 대한 다집단분 석 모형비교	23
[표8]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수준 변화에 대한 다집단분 석 결과	24
[표9]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공격성 변화에 대한 다집단 모형 비교	24
[표10]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공격성 변화에 대한 다집단분석 결과	25
[표11] 아동·청소년 우울 변화 예측요인	27
[표12] 아동·청소년 공격성 변화 예측요인	28

I. 서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 유무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시기의 우울수준과 공격성 정도의 변화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의 공백이 중·고등학교 시기의 정서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기존에 일부 저소득층 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상황으로 아동학대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졌던 아동방임을, 대다수 가족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 아동의 자기보호로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남성 일인 부양자 모델에 기초하여 형성된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는 일반적인 가족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방과후 아동방임 문제가, 이인부양자 모델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사회현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가족정책의 핵심이 전통적으로 가족(여성)이 수행해왔던 돌봄의 사회적 분담(송다영, 2010)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방과후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가족정책적 접근의 필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아동돌봄 노동의 주된 역할을 수행해 온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이와 함께 개별가정의 돌봄기능이 취약해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송혜림, 2012). 이에 따라 여성이 어머니로서 전담해 온 아동돌봄 역할의 분담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봤을 때, 역할 분담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가정 내에서 주부양자 역할을 수행해 온 아버지가 아동돌봄 노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 밖에서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탈가족화된 돌봄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송다영, 2012; 송혜림, 2012; 이채정,

2009).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에 따른 아동돌봄의 문제는 일·가정 양립이나 균형의 어려움이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중장기보육계획 등의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왔다. 이러한 아동돌봄 지원정책들은 주로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위주로 추진되어 왔고(송혜립, 서지원, 2008), 지난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아동돌봄 정책을 시행하였다(윤성호, 2012). 이러한 정책 시행에 대해 한편에서는 ‘과잉복지’나 정책적 시행착오 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강하게 실천되고 있다(조영희, 2012).

그런데 영유아 돌봄에 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2011년 실시된 여성가족부의 「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나홀로 아동¹⁾) 안전현황조사」에 의하면, 방과 후 집에 돌아갔을 때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아이들끼리 지내는 아동이 97만 명(전국 초등학생 328만 명 중 29.6%)이고, 이들 중 하루에 3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보호자 없이 집에 있는 아동은 47.7%(46만 명)이며, 전체 아동의 3.7%(12만 2351명)는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지내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통계청(2012) 자료에 의하면 2012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는 전체 유배우 가구 중 43.5%(509만7천 가구)에 해당하고, 김영란, 황정임(2011)이 2005년 인구총조사자료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자녀연령대별 규모는 영유아 약 85만 명, 초등학교 고학년 약 75만 명, 초등학교 저학년 약 6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138만 명의 초등학생 중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사업, 방과후보육,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등)의 이용자는 약 54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통계자료를 통해, 한국 사회의 맞벌이가구 초등학생자녀에 대한 돌봄의 사회적 지원

1) 여성가족부는 「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나홀로 아동) 안전현황조사」와 관련하여, 나홀로 아동을 자기보호아동과 동일시하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끼리만 집에 있는 13세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이 미흡한 실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하여 현재 53%에 머무는 여성 고용률을 5년 내 61.9%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 2013.6.4.).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여성의 고용률이 상승하면, 여성의 취업 증가와 함께 아동이 방과 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M”자 형태의 여성 노동공급곡선의 존재를 파악한 이준성(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연구한 민현주(2011)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혼을 전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출산과 집중적인 자녀양육기(만8세 미만)를 지나서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과 관련하여, 출산과 집중적인 자녀양육기를 지나 여성의 노동시장에 재진입 한다면,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미취학 아동의 돌봄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에도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학령기 아동·청소년 중,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정서에 대한 연구들(노연경, 홍세희, 2010; 최수미, 김수현, 조영일, 2012)은 초기 청소년기의 정서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초기 청소년기의 정서적 문제가 인간 발달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초기 청소년기의 정서와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박서정, 김순옥, 2005; 윤명숙, 이재경, 2010; 최수미, 김수현, 조영일, 2012)을 통해 초기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부모 돌봄의 공백이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방과후 아동돌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첫째, 대부분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남성이 일을 통해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고 여성이 가정에서 돌봄노동을 전담하는 일인부양자

모델이 보편적이었던 산업사회에서, 남성 일인부양자의 소득만으로 생활이 불가능 했던 저소득층의 경우 생존을 위해 부부 맞벌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일반가구에서는 아버지가 돈을 벌고 어머니가 자녀돌봄 노동을 수행했지만, 저소득가구에서는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해야 해서 자녀가 학교활동을 마친 후부터 부모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자녀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방과후 자녀돌봄의 공백은 더 이상 저소득가구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아니다.

둘째, 방과후 아동돌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은 어느 정도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다고 간주되어 이들의 방과후 돌봄에 관한 논의는 그리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 방과 후 자기보호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김지경, 김균희, 2013)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아동의 자기보호 정도가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봉주, 조미라, 2011) 등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방과후 자기보호 아동의 비행 행동에 관해 다루거나(Aizer, 2004; Coley, Morris, & Hernandez, 2004; Lord & Mahoney, 2007; Mahoney & Parente, 2009), 학업성취에 대해 다루고 있다(Lord & Mahoney, 2007; Shumow, Smith & Smith, 2009; 이봉주, 조미라,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돌봄의 부재가 비행 행동이나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정서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밝히는 연구가 부족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 유무에 따라 정서적 내재화 문제인 우울과 정서적 외현화 문제인 공격성 변화의 궤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 살펴본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 유무가 그들의 중

학교, 고등학교 시기 정서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둘째, 가구소득이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자기보호 경험 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본다. 이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 유무가 가구소득이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자기보호 아동과 신사회적 위험, 방과후 아동돌봄 정책의 현황,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3장에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4장과 5장을 통해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6장에서 결론 및 논의를 작성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신사회적 위험과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

최근 핵가족화, 맞벌이 가구의 증가, 이혼율 증가, 소득 양극화의 심화 등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노령, 질병, 실업, 산재 등의 구사회적 위험과 구별되는 신사회적 위험 대응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김교성, 김연명, 최영, 김성옥, 김송이, 황미경, 2010). Taylor-Gooby(2004)는 신사회적 위험을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 사회변동의 결과로서 사람들의 생애기간에 직면하는 위험들”로 규정한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화되는 실업과 장기빈곤의 위험, 전통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민영화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Taylor-Gooby, 2004). 최근 가족의 돌봄 기능 수행에 있어서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송혜림, 2012; 윤홍식, 2007; 윤홍식, 2011; 이채정, 2009; 최은영, 2013;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한국 사회에서 ‘나홀로 아동’이라는 용어 사용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방과 후 ‘자기보호 아동’(공유경, 김희화, 2006; 김지경, 김균희, 2013; 김혜금, 2005)에 대한 관심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측면에서 신사회적 위험과 관련 지어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자녀가 방과 후에 어머니의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여성가족부(2011.9.23)에 따르면, 이러한 가능성은

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족들에게 골고루 열려 있다²⁾.

김영란, 황정임(2011)이 2005년 인구총조사자료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자녀연령대별 규모는 영유아 약 85만 명, 초등학교 고학년 약 75만 명, 초등학교 저학년 약 6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138만 명의 초등학생 중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사업, 방과후보육,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등)의 이용자는 약 54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통계자료를 통해, 한국 사회의 맞벌이가구 초등학생자녀에 대한 돌봄의 사회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교육부 관할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 관할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할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각 서비스별 이용 대상은 <표1>과 같다.

<표1>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별 대상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방과후학교	주대상(모든학생)											
초등돌봄교실	주대상(저소득, 맞벌이 가정)											
방과후아카데미				주대상(저소득가정)								
지역아동센터	주대상(빈곤, 해체 가정)						일부대상					

출처: 조영희(2012)

각 서비스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 2013년 4월 현재 초·중·고 전체학교의 99.9%(11,397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72.2%(4,678천 명)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교육부, 2013).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2013년 4월 현재 전국 5,784개 초등학교에서 7,395개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159,737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교육부,

2) 여성가족부(2011.9.23)에 따르면, 경제수준 ‘상’, ‘중’, ‘하’ 가구의 자기보호 아동 비율이 27.1%, 30.9%, 39.7%로 나타났다.

2013.10.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의 관장 하에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3년 10월 현재 전국에 200개소(초등 137개, 중등 42개, 혼합 2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통계청, 2013), 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목 교육, 체험활동, 생활관리, 식사 및 귀가지도까지 총체적인 방과후 시간 관리를 해 준다. 지역아동센터는 2003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에서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 사용과 함께, 지역아동센터가 국고 지원을 받는 합법적인 아동복지시설로 확정되어 2004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조영희, 2012), 2013년 6월말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총 4,036개소가 설치되어있고, 이용 아동 수는 109,256명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2.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역량의 문제에 관한 연구는 보통 두 가지 차원으로 문제를 분류한다(Achenbach, 1991). 하나는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감정이나 상태를 말하는 내면화 문제이고 이것은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문제로 나타난다(Campbell, 2002).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공격성, 과잉행동, 거짓말, 도벽,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등의 문제를 의미한다(문대근, 문수백, 2011). 문대근, 문수백(2011)에 따르면, 내면화 문제의 정도가 심해지면 외현화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이주리, 2008),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로 나누어 그에 따른 개인변인 및 환경변인 간의 관련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을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인 내면화 문제 중 하나인 우울과 대표적 외현화 문제 중 하나인 공격성을 다루려 한다.

1) 우울의 발달

아동·청소년기의 우울은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가족이나 학교에서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부적응을 야기한다(곽금주, 문은영, 1993).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아동·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부모의 방임(김광혁, 2009; 김재엽, 최권호, 2012; Vranceanu, Hobfoll, & Johnson, 2007), 부모와의 관계(조정아, 2008; 최인재, 2007), 또래관계(김정민, 이정희, 2008;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조정아, 2008), 학업성취(김정민, 이정희, 2008; 서미정, 2008)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우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우울과 여러 변수들의 관련성을 보는 횡단연구로 수행되었는데, 정서적인 우울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가지므로, 아동·청소년기 정서적 우울에 관한 종단연구를 통해 우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노언경, 홍세희, 2010).

최근에는 자료의 발달로 인해 우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언경, 홍세희(2010)는 변화에 민감한 초기 청소년기에 집중하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기까지의 우울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잠재계층)의 수와 그 형태를 알아보고, 성별,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이 모두 잠재계층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윤명숙, 이재경(2010)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추적 조사한 청소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우울의 종단적 발달궤적과 두 변수의 발달궤적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 부모애착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울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애착 초기값이 높을수록, 우울의 초기값이 낮고 우울의 증가속도는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송예리나, 김진영(2013)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 중 중2 패널의 2차년도부터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중3시기에서 고3시기 우울수준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부모와의 소통정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중3시기 부모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학생일수록 우울수준이 높았고, 중3에서 고3시기 동안 부모와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학생일수록 우울의 변화도 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우울에 관한 종단연구들은 초기 청소년기의 부정적 정서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뿐만 아니라 중학교 시기까지도 부모는 여전히 이들의 발달과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공격성의 발달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은 우울·불안 및 학업적 어려움과 연관되고(서미정, 2009),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비행·폭력 등의 문제와도 관련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적응 문제와 장기간 연결되면서 더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서미정, 김정연, 2010).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격성의 예측요인은 부모의 방임(김광혁, 2009; 김재엽, 최권호, 2012; Vranceanu, Hobfoll, & Johnson, 2007), 부모의 감독 및 애착(Martino et al., 2008), 또래관계(김동기, 홍세희, 2007; 박민정, 박혜원, 2006), 학업성취(Bub, McCartney, & Willett, 2007) 등이 있다.

우울 연구와 마찬가지로 공격성 연구에서도 최근 자료의 발달로 인해 공격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기, 홍세희(2007)는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상의 공격성 변화추이를 밝히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공격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이는 성별, 자기통제 정도, 또래체계의 비행친구 수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비행친구 수가 많을수록 공격성의 초기값이 높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감소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원, 김예성(2009)은 위의 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공격성 발달궤적의 차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는 데 차이가 있다. 구분한 집단은 각각 높은 수준의 공격성이 지속되는 집단, 낮은 수준의 공격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집단, 공격성이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집단, 높은 수준의 공격성이 빠르게 감소하는 집단, 보통수준의 공격성이 지속되는 집단, 높은 수준의 공격성이 약간 감소하는 집단 등 6개이고,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에는 성별, 자아통제수준, 또래, 교사, 부모와의 관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정, 김정연(2010)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공격성 변화유형을 중간수준 안정형과 증가형, 그리고 감소형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유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연구대상 및 측정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서미정, 김정연, 2010). 연구결과, 남성은 대다수(93%)가 중간수준 안정형으로 분류된 데 반해, 여성은 절반 정도(49%)가 증가형 집단에 속하였고, 공격성 변화유형의 예측요인은 개인, 가족 등 다양한 영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요인 중 개인과 가족 영역의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특성인 자기통제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의 감소형 집단과 비교하여 중간수준 안정형 및 증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자기통제수준이 높을수록 감소형에 비해 중간수준 안정형 및 증가형 집단에, 그리고 중간수준 안정형보다 증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요인 중에서는 부모 학대가 공격성 변화유형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학대가 심할수록, 남성은 중간수준 안정형에 비해 감소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여성은 증가형에 비해 중간수준 안정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격성에 관한 종단연구들은 우울에 관한 종단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초기 청소년기의 부정적 정서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하며, 초등학교 고학년시기뿐만 아니라 중학교 시기까지도 부모는 여전히 이들의 발달과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방임/자기보호와 정서발달

본 연구에서 ‘자기보호 아동’은 방과 후 일정 시간 이상을 성인 보호자의 보호 없이 혼자 또는 아동끼리만 지내는 아동을 의미하며, 방과 후 성인보호자의 돌봄 지원을 받는 ‘성인보호 아동’과 대비된다. 또한 ‘자기보호 아동’이 성인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물리적 측면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는 점에서 고의적, 반복적으로 관심과 양육을 소홀히 하는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둔 ‘방임 아동’과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봉주, 조미라, 2011)³⁾.

선행연구에서 자기보호 아동의 개념정립을 위해 사용하는 ‘방임 아동’은 아동에게 필요한 적절한 관심과 양육, 보호가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의미하는데, 김광혁(2009)이 방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5개 설문 문항⁴⁾을 통해서 아동방임의 구체적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방임 아동과는 구별되는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Long & Long(1983)의 연구를 시작으로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 있는 아동발달에 관한 대표적인 몇몇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humow et al.(2009)은 방과후 자기보호 시간이 증가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학교에서 더 많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ord & Mahoney(2007)는 방과후 자기보호 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 이봉주, 조미라(2011)는 ‘자기보호’라는 개념보다 ‘방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이 ‘방치’를 ‘자기보호’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세원, 손주영(2011)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봉주, 조미라(2011)의 연구를 자기보호 아동에 관한 연구의 하나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기보호 아동’의 개념 설명을 위해, 그들의 연구를 인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습기 찬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부모님이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부모님은 내가 몰래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도 모른 체 한다”, “부모님은 이유 없이 내가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 한다”, “부모님은 내가 불량 오락실에 출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한다”

Aizer(2004)는 방과후 자기보호를 하는 집단이 성인보호를 받는 집단보다 문제행동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미국에서 진행된 방과후 자기보호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나 문제행동을 다루고 있고, 이는 연구주제가 구체화 세분화 될수록 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방과후 자기보호와 관련해서 정서발달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초기에 진행된 아동발달 전반(학업성취, 정서발달, 행동발달 등)을 다루는 개괄적 성향의 연구들(Long & Long, 1983; Richardson et al., 1993)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진정한 의미의 발달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 선행연구도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발달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실태조사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최근 패널 데이터의 발달로 인해서 발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아직까지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학업성취, 정서발달, 행동발달 전반에 걸쳐서 개괄적인 연구를 수행한 이봉주, 조미라(2011)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할 수 있는데, 이는 데이터의 한계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기까지의 결과만을 다루었고 방과후 자기보호가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Ⅲ. 연구문제

- 1) 자기보호 경험 유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변화의 궤적이 다른가?
- 2) 가구소득이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기보호 경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IV.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 중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의 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연 1회 실시되는 종단자료로서, 조사대상가구에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함으로써 패널조사로는 유일하게 전국적인 대표성을 확보하였다⁵⁾.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는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의 3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 연도에 하나의 주제가 조사되는데, 2006년도 1차년도에 아동부가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도 2차년도에는 복지인식부가조사가 실시되었고 2008년도 3차년도에는 장애인부가조사가 실시되었다. 이후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 순으로 계속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1차와 4차, 그리고 7차년도의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결합해서 사용하면 2006년도 당시 초등학교 4,5,6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아동들이 2009년도 중학생 시기와 2012년도 고등학생 시기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가 가능하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총 759명으로 그 중 여학생이 356명(46.9%), 남학생이 403명(53.1%)으로 구성되었다.⁶⁾

5)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http://koweps.re.kr>

6) 1차년도에 응답한 759명 중 4차년도 응답 인원은 609명(약80%), 7차년도 응답 인원은 521명(약69%)이다. 모형 추정에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으며, 결측치 문제의 해결은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2. 변수와 측정도구

1) 자기보호 경험 유무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방과후 집에 돌아가면 집에 누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자료분석을 위해 방과후 집에 아무도 없거나 18세 이하의 형제만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자기보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호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자기보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재코딩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K-CBCL(Korea-Child Behavior Check List)⁷⁾ 중 우울정도를 묻는 13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3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분석을 위해 3점 척도(1=전혀 아니다-3=자주 그렇다)를 재코딩하고(0=전혀 아니다-2=자주 그렇다)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이 변수는 아동·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해당한다.

3)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K-CBCL 중 공격성 정도를 묻는 1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3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분석을 위해 3점 척도(1=전혀 아니다-3=자주 그렇다)를 재코딩하고(0=전혀 아니다-2=자주 그렇다)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이 변수는 아동·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해당한다.

7) Achenbach가 개발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를 오경자 등(1998)이 번안한 척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3. 자료분석 및 연구모형

자료의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위해 PASW 18.0을 사용하였으며,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 학년, 가구 경제수준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⁸⁾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경험 유무에 있어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았다. 셋째,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모형으로 방과후 돌봄경험 유무에 따른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친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발달궤적을 분석하였다. 넷째, 잠재성장모형의 조건모형으로 방과후 돌봄경험 유무에 따라 소득수준이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때에는 X^2 대신에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X^2 의 경우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해서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고,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홍세희, 2013). 이에 홍세희(2013)가 표본크기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 모두를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라고 설명하는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적합도는 Hu와 Betler(1999)의 경우 TLI와 CFI는 .95이상, 그리고 RMSEA는 .06이하를 양호한 것으로 보았고, 홍세희(2013)의 경우 RMSEA를 .10이하를 보통, .08이하를 괜찮음, .05이하를 좋은 적합도로 보았다. 적합도의 기준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으므로 위의 기준들을 함께 고려해서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IRB 심의와 관련해서는 패널자료 사용으로 인해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위원회에 심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심의 면제를 승인을 받았다.⁹⁾

8) 복지패널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같은 비율로 표본 추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분석에서는 표준가중치를 적용하였다.

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년도 아동부가조사의 응답자 수는 총 759명이고, 성별분포는 여학생 352명(46.4%), 남학생 407명(53.6%)으로 남학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는 초등학교 4학년 263명(34.7%), 초등학교 5학년 238명(31.5%), 초등학교 6학년 256명(33.8%)로 비교적 균등한 학년별 분포로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소득수준별 분포는 일반가구 602가구(79.3%), 저소득가구 157가구(20.7%)로 일반가구의 수가 저소득가구의 수의 약 네 배에 달했다.

<표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차년도)

(단위: 명, %)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학생	352	46.4
	남학생	407	53.6
	합계	759	100.0
학년	4학년	263	34.7
	5학년	238	31.4
	6학년	256	33.8
	합계	757	99.9
소득수준	일반가구	602	79.3
	저소득가구	157	20.7
	합계	759	100.0

9) 승인날짜: 2013.9.16. 승인번호: IRB No. E1309/001-020

2.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방과후 자기보호경험

<표3>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방과후 아동방임에서 소득수준별 자기보호 정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소득수준에 따른 자기보호의 유형인데, 기존 연구들은, <표4>에서 나타나듯이, 저소득 가구의 아동·청소년의 자기보호가 이들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집밖에서 친구들과 노는 등의 행태로 나타나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표3> 소득수준에 따른 방과후 자기보호경험

단위: 명(%)

	일반 가구	저소득가구	합계	χ^2
아무도 없다	107(18.0)	24(15.4)	131(17.5)	1.49
18세 이하 형제만 있음	87(14.6)	19(12.2)	106(14.1)	
보호자 있다	400(67.3)	113(72.4)	513(68.4)	
합계	594(100.00)	156(100.00)	750(100.00)	

<표4> 소득수준에 따른 방과후 집에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방과후 시간 사용

단위: 명(%)

	일반 가구	저소득가구	합계	χ^2
집에서 혼자 숙제, 놀이	75(38.9)	22(51.2)	97(41.1)	25.21
집밖에서 친구들과 논다	25(13.0)	10(23.3)	35(14.8)	
학원에 간다	92(47.7)	7(16.3)	99(41.9)	
방과후 교실에 간다	1(0.5)	3(7.0)	4(1.7)	***
기타	0(0.0)	1(2.3)	1(0.4)	
합계	193(100.00)	43(100.00)	236(100.00)	

***p<.001

그런데 <표4>를 보면, 일반 가구 아동·청소년의 자기보호 유형은 저소

득 가구의 자기보호 아동·청소년과는 다른 행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4>에서 방과후 집에 왔을 때 보호자가 없는 일반 가구의 아동·청소년은 응답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학원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자기보호에 관한 연구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집밖에서 친구들과 노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청소년에게 주된 관심을 가졌고, 학원에서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일반 가구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자기보호 논의의 대상에서 관심 밖의 대상이었다.

3.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종단적 변화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가는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무변화모형과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부록 표1>). 그 결과, 두 모형 중 무변화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만 수용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모형 중 모형적합도가 수용가능한 범위에 있는 선형변화모형을 최종적으로 무조건부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5> 아동·청소년 우울수준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우울	평균	S.E.	C.R.	분산	S.E.	C.R.
초기값	4.113	.128	32.052***	6.213	1.296	4.792***
변화율	.195	.111	1.750+	3.216	.751	4.283***
초기값-변화율 의 상관관계	계수		S.E.	C.R.		
	-1.313		.791	-1.660+		

NFI=1.000, CFI=1.000, TLI=1.039, RMSEA=.000

+p<.100 ***p<.001

무조건모형에 대한 우울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표5>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차년도 우울수준은 4.113점($p<.001$)이고 변화율이 .195($p<.010$)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우울수준은 연간 .195점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의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기에 낮은 우울 수준이 청소년기 급격히 높아진다는 연구(Wickrama, Conger, & Abraham, 2008), 중학교 시기에서 고등학교 시기까지 우울 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송예리아, 김진영, 2013), 집단의 특성에 따라 우울변화 궤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노연경, 홍세희, 2010)등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우울변화 양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우울수준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가는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무변화모형과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부록 표 2>). 그 결과, 두 모형 중 무변화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만 수용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모형 중 모형적합도가 수용가능한 범위에 있는 선형변화모형을 최종적으로 무조건부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6> 아동·청소년 공격성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우울	평균	S.E.	C.R.	분산	S.E.	C.R.
초기값	4.436	.160	27.711***	9.873	1.601	6.168***
변화율	-.586	.118	-4.961***	3.883	.840	4.621***
초기값-변화율 의 상관관계	계수		S.E.	C.R.		
	-2.688		.950	-2.828**		

NFI=.998, CFI=1.000, TLI=1.018, RMSEA=.000

** $p<.010$ *** $p<.001$

무조건모형에 대한 공격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표8>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차년도 공격성이 4.436점($p<.001$)이고 변화율이 $-.586(p<.001)$ 으로 연구대상자들의 공격성은 연간 .586점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공격성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김동기, 홍세희, 2007; 김세원, 김예성, 2009)와 일치하는 것으로 연구대상자의 공격성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 추정치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울수준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공격성은 평균적으로 감소하지만, 개인에 따라 증가·감소의 폭이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자기보호 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규명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호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두 집단을 중심으로 다중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방과후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아동·청소년 우울과 공격성의 변화

다중 잠재성장모형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의 요소들에 대한 집단 간의 형태 동일성에 대한 일련의 제약을 가한 모형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허만세, 장승옥, 2010).

아래 모형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중 하나인 CFI를 기준으로 그 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다.¹⁰⁾ 모형 비교 결

10) 일반적으로 모형 비교를 위해 카이제곱차이 검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카이제곱차이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비교하고자 하는 두 모형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덜 제약된 모형을 선호하여 유의미한 p값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에서 CFI(Δ CFI)값을 기

과, 요인부하량 제약모형과 평균 제약모형, 공분산 제약모형 간의 CFI값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준인 .01보다 작기 때문에 세 모형은 서로 같은 모형으로 볼 수 있는 반면(Cheung and Rensvold, 2002), 공분산 제약모형과 오차분산 제약모형 간의 CFI값의 차이는 .01이상이므로 두 모형은 서로 다른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모형으로 판단되는 오차분산 제약모형을 제외한 세 모형 중 가장 간명한 모델인 공분산 제약모형을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공분산 제약모형은 집단 간 우울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화궤적이 일치할 뿐 아니라, 두 잠재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까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7>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수준 변화에 대한
다집단분석 모형비교¹¹⁾

모형	모형적합도 검증			모형비교 검증
	TLI	CFI	RMSEA	△CFI
요인부하량 제약	1.051	1.000	.000	
평균 제약	.975	.992	.021	.008
공분산 제약	.964	1.000	.000	-.008
오차분산 제약	.886	.905	.044	.095

좀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 초기치와 기울기에 각각 제약을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우울수준의 선형변화모형에서 집

준으로 모형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De Jong, Steenkamp, and Fox, 2007; Maanse and John, 2008; Woehr, Arciniega, and Lim, 2007).
11) <표 7>은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다중 잠재성장모형들 간의 모형비교가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요인부하량 제약모형은 우울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집단 간에 다르지만 요인부하량이 집단 간에 동일하다는 모형이고, 평균 제약모형은 우울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 및 요인부하량이 집단 간에 동일하다는 모형이다. 공분산 제약 모형은 집단 간에 우울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화궤적이 일치할 뿐 아니라 두 잠재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까지 일치한다는 모형이고, 오차분산 제약모형은 앞선 공분산 제약모형에서 각 지표변수들의 오차분산도 집단 간에 동일하다는 모형이다.

단 간에 아무것도 제약을 하지 않은 기저모형(형태동일성)과 우울수준의 초기치가 집단 간에 동일하다는 제약을 한 모형(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그리고 우울수준의 기울기가 집단 간에 동일하다는 제약을 한 모형(기울기 요인의 평균동일성)의 모형간 CFI값의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8>에서 형태동일성 모형과 절편 요인의 평균동일성 모형 간의 CFI값의 차이는 .01이상인데 반해 형태동일성 모형과 기울기 요인의 평균 동일성 모형 간의 CFI값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형태동일성 모형과 절편 요인의 평균 동일성 모형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²⁾

<표8>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수준 변화에 대한
다집단분석 결과

모형	모형적합도 검증			모형비교 검증
	TLI	CFI	RMSEA	△CFI
형태동일성	1.051	1.000	.000	
절편 요인의 평균동일성	.960	.990	.021	.010
기울기 요인의 평균동일성	1.059	1.000	.000	.000

<표9>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공격성 변화에 대한 다집단 모형비교

모형	모형적합도 검증			모형비교 검증
	TLI	CFI	RMSEA	△CFI
요인부하량 제약	1.048	1.000	.000	
평균 제약	.910	.970	.042	.030
공분산 제약	.839	.906	.056	.064
오차분산 제약	.856	.880	.053	.026

12)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 초기치(M=3.941)와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 초기치(M=4.517)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고,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 변화율(M=.206)과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 변화율(M=.157)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9>는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변화에 대한 다집단 모형비교를 실시한 것이다. CFI값을 기준으로 모형을 비교한 결과, 네 모형 간 CFI값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준인 .01보다 크기 때문에 네 모형이 서로 다른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인부하량 제약모형을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하였고, 이 모형은 집단 간 요인부하량은 같지만, 집단 간 공격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10>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공격성 변화에 대한 다집단분석 결과

공격성	평균	S.E.	C.R.	분산	S.E.	C.R.	공분산(초기값-변화율)		
							계수	S.E.	C.R.
성 초기	4.101	.180	22.785	7.327	1.753	4.179	-1.929	1.084	-1.779+
인 값			***			***			
보 변화	-.475	.139	-3.428	2.812	.963	2.919			
호 율			***			**			
자 초기	5.197	.325	16.012	14.157	3.424	4.134	-3.845	1.899	-2.025*
기 값			***			***			
보 변화	-.849	.226	-3.754	5.996	1.702	3.523			
호 율			***			***			

NFI=.997, CFI=1.000, TLI=1.048, RMSEA=.000

+p<.100 *p<.050 **p<.010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보호 아동·청소년과 자기보호 아동·청소년 모두 공격성 평균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공격성이 유의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격성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에 대한 집단 차이를 살펴보면, 초기값의 경우에는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이 5.197(p<.001)점으로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의 4.101(p<.00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변화율에서는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변화율 평균이

-0.849($p<.001$)로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의 평균인 -0.475($p<.0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의 감소가 성인보호 아동·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공격성 변화율의 분산과 관련해서, 성인보호 아동·청소년과 자기보호 아동·청소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공격성 변화궤적에서 개인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방과후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라 가구소득이 아동·청소년 우울과 공격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가구소득이 아동·청소년 우울과 공격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방과후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소득, 학년, 성별을 아동·청소년 우울과 공격성 변화를 예측하는 변수로 설정하는 조건부 잠재성장모형을 성인보호 집단과 자기보호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형에서 기준년도(2006년)의 가구소득은 독립변수로, 학년과 성별은 통제변수로 사용하였고, 경로 제약에 따라 여러 모형들을 만들고 모형 간 비교를 통해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우선 아동·청소년 우울 변화 예측요인에서 가구소득, 학년, 성별의 경로가 성인보호와 자기보호 집단 간에 다르다고 가정하는 무제약 모형과 추가적인 제약을 통해 집단 간에 각 변수들의 경로가 같다고 가정하는 제약모형들을 비교하였다(<부록 표3>).¹³⁾ 모형 비교 결과, 최종적으로

1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측정오차 제약 모형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약모형들은 제약모형 모두 높은 모형적합도를 보이고, CFI값의 차이를 통한 모형비교 검증 실시한 결과 측정오차 제약 모형을 제외한 모든 모형들간 CFI값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제약모형과 측정오차 제약모형만 서로 다른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형으로서 아동·청소년 우울 변화에서 요인부하량, 절편, 평균, 공분산, 오차분산에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오차분산 제약모형을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오차분산 제약모형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우울 변화 예측요인을 살펴보면 <표11>과 같다. 성인보호 아동·청소년과 자기보호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가구소득과 학년은 우울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에서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1차년도 우울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고, 우울수준의 변화 정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아동·청소년 우울 변화 예측요인

요인	우울 초기값			우울 변화율		
	β	S.E.	C.R.	β	S.E.	C.R.
가구소득	.001	.271	.019	.029	.227	.476
학년	-.013	.153	-.245	.051	.129	.858
성별	.124	.256	2.373*	-.355	.214	-5.918

*p<.050 ***p<.001 주. 학년과 성별은 통제변수로 투입됨.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공격성 변화 예측요인에서 가구소득, 학년, 성별의 경로가 성인보호와 자기보호 집단 간에 다르다고 가정하는 무제약 모형과 추가적인 제약을 통해 집단 간에 각 변수들의 경로가 같다고 가정하는 제약모형들을 비교하였다(<부록 표4>). CFI값의 차이를 통한 모형 비교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무제약모형과 요인부하량 제약모형만 서로 다르지 않고, 다른 모형들은 전부 서로 다른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형으로서 아동·청소년 공격성 변화에서 집단 간 요인부하량에 차이가 없다는 요인부하량 제약모형을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요인부하량 제약모형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변화 예측요인을 살펴보면 <표12>와 같다. 성인보호 아동·청소년과 자기보호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가구소득은 공격성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의 경우 공격성의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성별의 경우 공격성의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에서 모두, 고학년일수록 공격성의 초기값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공격성의 변화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12> 아동·청소년 공격성 변화 예측요인

	요인	성인보호	자기보호	S.E.	C.R.
		β	β		
공격성 초기값	가구소득	.015	.010	.331	.256
	학년	-.146	-.100	.188	-2.482*
공격성 변화율	성별	.077	.055	.313	1.321
	가구소득	.073	.048	.249	1.033
	학년	.109	.072	.141	1.541
	성별	-.188	-.129	.235	-2.685**

*p<.050 **p<.010 주. 학년과 성별은 통제변수로 투입됨.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 유무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시기의 우울수준과 공격성 정도의 변화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의 공백이 중·고등학교 시기의 정서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려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 중 아동부가조사를 실시한 1, 4,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본 자료는 1차년도에 초등학교 4,5,6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759명의 아동·청소년을 추적 조사하여, 이들이 중학교 1,2,3학년이 된 4차년도와 고등학교 1,2,3학년이 된 7차년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것이다. 4차년도와 7차년도의 응답자 수는 각각 609명(80%)과 521명(69%)이다. 가구소득에 따른 자기보호경험 빈도는 일반가구 아동·청소년의 32.6%, 저소득가구 아동·청소년의 27.6%가 자기보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1, 4, 7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우울수준과 공격성 정도의 변화궤적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에 잠재성장모델(latent growth curve model)을 적용하여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변화 궤적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종단적 변화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우울수준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시기까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격성의 변화는 같은 기간 동안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것은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로서 집단 내 개인 간 변화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연구대상자의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 추정치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증가·감소폭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종단적 변화 양

상 또한 다르게 진행되었다. 먼저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수준의 변화에 대한 다집단 분석(무조건부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한 결과, 방과후에 성인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집단(성인보호 아동·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집단(자기보호 아동·청소년) 간에 우울수준의 초기값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우울수준의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이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의 그것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시기와 고등학교 시기 우울수준의 변화율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우울 수준이 두 집단 간 차이를 유지하면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에 대한 다집단 분석(무조건부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한 결과, 성인보호 아동·청소년과 자기보호 아동·청소년 간에 공격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이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의 그것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격성의 감소율에 있어서도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큰 감소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이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의 그것에 비해 계속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자기보호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과 공격성은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과 비교할 때, 변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두 변수 모두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이 더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종단적 변화에 가구소득, 학년, 성별이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났다. 우울수준에서는 각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만 우울수준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판명되었다. 다시 말하면, 가구소득과 학년은 두 집단 모두에 있어서 우울수준

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은 두 집단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우울수준의 초기값 증가와 변화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의 경우, 각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과 성별이 공격성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판명되었다. 다시 말하면, 가구소득은 두 집단 모두에 있어서 공격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고학년일수록 두 집단 모두 공격성의 초기값이 감소하는데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이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두 집단 모두 공격성의 변화율이 감소하는데 이 또한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이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건부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가구소득이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과 공격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가구소득은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변화에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자기보호에 접근하는 데 있어 이것이 주로 저소득층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접근했던 기존 연구들(김세원, 손주영, 2011; Aizer, 2004; Vandivere et al., 2003)의 입장과는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소득에 관계없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가 모두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자기보호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앞서 살펴보았던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과 관련하여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중 방과 후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책의 주된 대상이 저소득가구의 아동·청소년에게 집중돼 있다. 이는 남성 일인 부양자 모델에 기초하여 형성된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자기보호가 일반적인 가족에서 보

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저소득 가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상황인 것과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인부양자 모델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자기보호가 저소득 가구와 일반가구 모두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사회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맞물려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의 대상을 저소득층에 집중시키는 현재의 정책 성격을 넘어서 소득과 관계없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모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부(2014.1.28.)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저소득가구 뿐만 아니라 일반가구 중 맞벌이가구의 아동·청소년도 서비스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것은 방과후 돌봄의 대상으로 일반가구의 아동·청소년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하여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보다는 현재 저소득가구의 아동·청소년을 주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대상을 일반가구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학교와 학생들 모두에게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까지 계속적으로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과 공격성이 모두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로 볼 때,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을 통해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정서적인 발달을 지지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방과후 돌봄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 아동·청소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야 하는 돌봄의 목적¹⁴⁾을 등한시 한다면, 방과후 돌봄 정책은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정서

14) 양승희 외(2006)는 방과 후 돌봄의 목적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 및 보호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둘째,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초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적 경험 및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취미와 오락 활동을 제공하여 건전한 아동문화를 조성한다. 넷째,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진인 발달을 위한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다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돌봄을 제공받는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을 고려하고, 돌봄 대상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돌봄의 목적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학업 보충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나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을 주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재편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에 일부 저소득층 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상황으로 아동학대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졌던 아동방임을, 대다수 가족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 아동의 자기보호로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가족정책의 핵심이 전통적으로 가족(여성)이 수행해왔던 돌봄의 사회적 분담(송다영, 2010)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방과후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가족정책적 접근의 필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표집 크기의 문제로 방과후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세부 유형에 따른 정서발달을 살펴볼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가정 내에서 혼자 지내는 아동·청소년과 어른들의 돌봄 없이 연속적으로 여러 학원을 다니는 아동·청소년 간에 정서발달의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시간 사용의 유형에 따른 정서발달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자기보호라는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 척도와 공격성 척도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공격성 척도를 관계적 공격성과 외현적 공격성으로 분류하는 연구(하문선, 김지현, 2013)나 직접적 공격성과 반항적 공격성으로 분류하는 연구(배도희, 오경자, 2010) 등을 볼 때, 추후 연구에서 척도를 세분화해서 연구를 진행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맞벌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참 고 문 헌

- 공유경, 김희화(2006).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와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지지 및 지역사회 환경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7(2), 153-165.
-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6(2), 29-43.
- 교육부(2013). 2013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공개용).
- 교육부(2014.1.28.).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연계 운영 계획 발표 -‘14년 1-2학년 돌봄교실 3,983실 추가 확충 -.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2013.6.4.). 고용률 70% 로드맵.
- 김광혁(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27-45.
- 김동기, 홍세희(2007).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조사연구, 8(2), 21-42.
- 김세원, 김예성(2009). 청소년의 신체적 공격성 발달궤적 및 예측요인. 인간발달연구, 16(2), 87-107.
- 김세원, 손주영(2011).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기보호와 적응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 어린이재단 서비스 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 동광, 107, 35-89.
- 김영란, 황정임(2011). 맞벌이 가구 자녀돌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돌봄네트워크모델 개발: 초등자녀를 중심으로. 젠더리뷰, 23, 62-64.
- 김재엽, 최권호(2012). 중북학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 신체학대와 방임의 중복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193-213.
- 김정민·이정희(2008).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과 학업성취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가족생활연구, 12, 115-128.

- 김지경, 김균희(2013). 아동의 방과후 자기보호 일수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22(1), 1-15.
- 김혜금(2005). 학령기 자기보호 아동과 성인보호 아동간 가정내 안전사고 위험 요인 연구. 방과후아동지도연구, 2(1), 99-119.
- 노언경, 홍세희(2010). 초기 청소년의 정서적 우울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성별, 관계 친밀도와의 관련성 검증. 교육방법연구, 22(2), 91-110.
- 문대근, 문수백(2011). 아동의 내면화, 외현화문제행동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적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32(5), 49-65.
- 민현주(2011).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별 생애사건 효과분석. 한국인구학, 34(1), 53-72.
- 박민정, 박혜원(2006). 자아개념, 애착, 교사 및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조선족 및 한국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3), 79-89.
- 박서정, 김순옥(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35-53.
- 보건복지부(2013).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 서미정 (2008).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에 대한 성별 및 학업성취감의 영향력 검증: 우울/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4), 115-138.
- 서미정(2009).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와 비행, 우울/불안 및 학업 성취감: 잠재성장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0(2), 141-167.
- 서미정, 김경연(2010).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유형과 예측요인: 성장혼합모형의 적용. 아동학회지, 31(3), 83-97.
- 송다영(2010). 복지국가에서 가족정책의 지위와 역할. 51-69. 윤홍식, 송다영, 김인숙(2010).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공동체.
- 송예리아, 김진영(2013). 연구논문 : 경제적 곤란 및 부모와의 소통과 청소년기 우울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0(5), 131-155.

- 송혜림(2012). 자녀돌봄지원정책의 추이와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 발표대회 자료집, 6, 121-135.
- 송혜림, 서지원(2008). 취업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의 “일-가정 균형” 제도 현황.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191-206.
- 양승희 외(2006). 「창의적 활동중심의 방과후 아동지도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2006). 또래애착과 정서조절양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31-41.
- 윤명숙, 이재경(2010). 부모애착이 초기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분석. 사회과학연구, 26(2), 69-92.
- 윤성호(2012).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응과 차기정부의 과제 - 아동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183-200.
- 윤홍식(2007).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써 사회투자전략: 아동돌봄 관련 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지, 2, 343-347.
- 윤홍식(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 한국가족복지학, 33, 5-35.
- 이봉주, 조미라(2011).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6, 7-33.
- 이주리(2008).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초등학생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한국아동권리학회, 12(4), 503-523.
- 이준성(2008). 출산과 여성 노동공급: M커브 현상이 존재하는가?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 1-35.
- 이채정(2009). 스웨덴, 일본, 한국의 일가족양립지원정책 비교. 현대사회와 문화, 28, 105-138.
- 조영희(2012).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현황과 가족정책적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39-155.
- 조정아 (2008). 선형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우울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변화경향과 개인차에 대한 성별, 부모, 또래, 교사 요인 검증.

- 한국청소년연구, 20(3), 167-192.
- 최수미, 김수현, 조영일(2012).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심리내적 증상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에 관한 5년 종단연구. 상담학연구, 13(3), 1277-1293.
- 최은영(2013). 돌봄통합적 사회정책의 재설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 237-263.
- 최인재(200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611-628.
- 통계청(2012). 2012년 3/4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잠정결과.
- 통계청(201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e-나라지표.
- 하문선, 김지현(2013). 한국 초기 청소년 공격성척도(K-PCS)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1), 71-101.
-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2009). 한국 가족의 변화와 아동의 삶의 질. 아동학회지, 30(6), 1-1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 허만세, 장승옥(2010). 청년기 초반 성인의 알코올문제의 변화 추이- 성차와 우울이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327-350.
- 홍세희(2013).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 이론과 적용. 에스앤엠 리서치 그룹.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profile. Burlington, VM: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izer, A.(2004). Home alone: Supervision after school and child behavio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1835-1848.
- Bub, K. L., McCartney, K., & Willett, J. B.(2007). Behavior problem trajectories and first-grade cognitive ability and achievement skills: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3), 653-670.
- Campbell, S. B.(2002).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 Clinical and developmental issues. New York: Guilford Press.
- Cheung, G. W., & Rensvold, R. B.(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9(2), 233-255.
- Coley, R. L., Morris, J. E., & Hernandez, D. 2004. Out-of-school care and problem behavior trajectories among low-income adolescents: Individual, family,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s added risks. *Child Development* 75(3), 948-965.
- De Jong, M. G., Steenkamp, J. -B. E. M., & Fox, J. -P.(2007). Relax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cross-national consumer research using a hierarchical IRT mode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4, 260-278.
- Hu, L., Bentler, P. M.(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oseph L. Mahoney & Maria E. Parente(2009). Should we care about adolescents who care for themselves? What we have learned and what we need to know about youth in self-care.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3(3), 189-195.
- Long, T. J., & Long, L.(1983). *The Handbook of Latchkey children and Their Parents*. New York: Arbor House.
- Lord, H. & Mahoney, J. L.(2007). Neighborhood crime and self-care: risks for aggression and lower academic perform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3(6), 1321-1333.
- Maanse, H., & John, S. B.(2008). Cross-ethnic measurement invariance of the brief symptom inventory for individuals with severe and persistent mental illness. *Social Work Research*, 32(2), 71-78.

- Martino, S. C. et al.(2008). Multiple trajectories of physical aggression among adolescent boys and girls. *Aggressive Behavior*, 34, 61-75.
- Richardson, J. L., Radziszewska, B., Dent, C. W., & Flay, B. R.(1993). Relationship between after-school care of adolescents and substance use, risk taking, depressed mood, and academic achievement. *Pediatrics*, 92(1), 32-38.
- Shumow, L., Smith, T. J. & Smith, M. C.(2009). Academic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young adolescents in self-car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9(2), 233-257.
- Taylor-Gooby(2004). New risks, new welfare :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Vandivere, S., Tout, K., Azslo, M., Clkins J., & Capizzano, J.(2003). Left unsupervised: A look at the most vulnerable children. Child Trends Research Brief. *Child Tends*, 1-11.
- Vranceanu, A. M., Hobfoll, S. E., & Johnson, R. J.(2007). Child multi-type maltreatment and associated depression and PTSD symptoms: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tress. *Child Abuse and Neglect*, 31(1), 71-84.
- Wickrama, K. A. S., Conger, R. D., & Abraham, W. T.(2008). Early family adversity, youth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and young adult socioeconomic attainment: A latent trajectory class analysi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3, 161-192.
- Woehr, D. J., Arciniega, L. M., & Lim, D. H.(2007). Examining work ethic across populations: A comparison of the multidimensional work ethic profile across three diverse cultur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7(1), 154-168.

[부록1] 설문지 - 한국복지실태조사(아동용)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그런 편이다	자주 그렇다
문 4-1)	가 외롭다고 불평한다	1	2	3
	나 잘 운다	1	2	3
	다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1	2	3
	라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마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생각한다	1	2	3
	바 남들이 나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1	2	3
	사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1	2	3
	하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1	2	3
	자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1	2	3
	차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카 자의식이 지나치고(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쉽게 무안해 한다	1	2	3
	마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1	2	3
	바 걱정이 많다	1	2	3
문 4-2)	가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	1	2	3
	나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1	2	3
	다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	1	2	3
	라 정신이 헛갈리거나 혼미할 때가 있다	1	2	3
	마 공상을 하거나 멍하게 자기 생각에 빠지곤 한다	1	2	3
	바 충동적이고 생각없이 행동한다	1	2	3
	사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1	2	3
	하 불안으로 인해 몸을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나 움찔거린다 (눈 깜박임, 안면 찡그러짐 포함)	1	2	3
	자 학교 공부가 시원치 않다	1	2	3
	차 운동신경이 둔하고 움직임이 어색하다	1	2	3
	카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한다	1	2	3
문 4-3)	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나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1	2	3
	다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 놓지 않는다	1	2	3
	라 수줍거나 소심하다	1	2	3
	마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한다	1	2	3
	바 자주 뻘뻘해진다.	1	2	3
	사 비활동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다	1	2	3
	하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1	2	3
	자 위축되어서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1	2	3

문항		전혀 아니다	그런 편이다	자주 그렇다
문 4-4)	㉠ 나쁜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1	2	3
	㉡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1	2	3
	㉢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1	2	3
	㉣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애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1	2	3
	㉤ 가출한다	1	2	3
	㉥ 불을 지른다	1	2	3
	㉦ 집 밖에서 남의 물건을 훔친다	1	2	3
	㉧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다	1	2	3
	㉨ 성적인 행동이나 성적인 관계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	1	2	3
	㉩ 학교를 빼먹는다(무단결석)	1	2	3
	㉪ 술을 마시거나 약물(본드, 부탄가스, 각성제 등)을 사용한다	1	2	3
	㉫ 물건이나 시설을 부순다	1	2	3
문 4-5)	㉠ 말다툼을 자주 한다	1	2	3
	㉡ 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	1	2	3
	㉢ 동물을 잔인하게 다룬다	1	2	3
	㉣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1	2	3
	㉤ 내 물건을 부순다	1	2	3
	㉥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1	2	3
	㉦ 집에서 말을 안 듣는다	1	2	3
	㉧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1	2	3
	㉨ 샘을 잘 낸다	1	2	3
	㉩ 자주 싸운다	1	2	3
	㉪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1	2	3
	㉫ 고함을 지른다	1	2	3
	㉬ 으시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한다	1	2	3
	㉭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성질을 부린다	1	2	3
	㉮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1	2	3
	㉯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1	2	3
	㉰ 남을 잘 놀린다	1	2	3
	㉱ 성미가 급하고 제 뜻대로 안되면 데굴데굴 구른다	1	2	3
	㉲ 남을 위협한다	1	2	3

문 18) (모든 응답자) 평소 방과 후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면 누가 집에 있나요?

1. 아무도 없다
2. 형제(동생, 18세 이하의 형, 오빠, 언니, 누나)만 있다. → **문18-1)로 갈 것**
3. 보호자(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 19세 이상의 형, 오빠, 언니, 누나)가 계신다.
4. 기타 성인보호자(적을 것 :)

문 18-1) (문18)의 1, 2 번 응답자만) 여러분은 방과 후 시간을 대체로 어떻게 보냅니까?

1. 집에서 혼자 숙제를 하거나 논다
2. 집밖에서 친구들과 논다
3. 학원에 간다
4. 방과 후 교실(사회복지관, 공부방 등)에 간다
5. 기타(적을 것 :)

[부록2]

<부록 표1> 아동·청소년 우울수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모형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722	.814	.097
선형변화모형	1.039	1.000	.000

<부록 표2> 아동·청소년 공격성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모형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622	.748	.127
선형변화모형	1.018	1.000	.000

<부록 표3> 아동·청소년 우울 변화 예측요인에 대한
자기보호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의 다집단 잠재성장모형 비교

모형	모형적합도 검증			모형비교 검증
	TLI	CFI	RMSEA	△CFI
무제약	1.093	1.000	.000	
요인부하량 제약	1.126	1.000	.000	.000
절편 제약	1.061	1.000	.000	.000
평균 제약	.979	.991	.011	.009
공분산 제약	1.028	1.000	.000	-.009
오차분산 제약	1.045	1.000	.000	.000
측정오차 제약	.900	.927	.023	.073

<부록 표4> 아동·청소년 공격성 변화 예측요인에 대한
자기보호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의 다집단 잠재성장모형 비교

모형	모형적합도 검증			모형비교 검증
	TLI	CFI	RMSEA	△CFI
무제약	1.035	1.000	.000	
요인부하량 제약	1.089	1.000	.000	.000
절편 제약	.958	.984	.015	.016

평균 제약	.894	.952	.024	.032
공분산 제약	.963	.978	.014	-.026
오차분산 제약	.869	.913	.027	.065
측정오차 제약	.842	.884	.030	.029

Abstract

The Influence of Self-Care Experiences in the 4th to 6th Grades on Adolescent's Emotional Development

Jung, Chunesik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lack of after-school care in the 4th to 6th grades on emotional development in middle school through high school age adolescents. To do this, the trajectory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through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was compared by self-care experiences in the 4th to 6th grades.

The data was drawn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of Children Additional Survey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1st, 4th, and 7th wave). Participants of the 1st wave were 4th–6th grades, and 7th–9th grades in the 4th data and 10th–12th grades in the 7th data. There were 759(356 girls, 403 boys) students in the 1st wave, 609 students in the 4th wave, and 521 students in the 7th wave. This study used the frequency tables, t-test, and correlation analyses to

present general tendency and group differences.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with or without experiences of self-care in the 4th-6th grades. Then unconditional and conditional latent growth curve models were conducted by groups.

The major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depression increased from 4th-6th grades to 10th-12th grades, but the level of aggression from 4th-6th grades to 10th-12th grades decreased.

Second, the level of depression for self-care children and adolesc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level of depression for adult-care children and adolescents in 4th-6th grades, and this difference maintained until 10th-12th grades withou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f depression. Also the level of aggression for self-care children and adolesc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level of aggression for adult-care children and adolescents in 4th-6th grades, and the decreasing rate of aggression for self-care children and adolesc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decreasing rate of aggression for adult-care children and adolescents.

Third, family incom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depression in 4th-6th grades and the rate of change for both groups. Moreover, family incom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rate of aggression change for both groups.

Consequently, self-care children and adolescents need after-school care services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emotional development irrespective of their family income.

**keywords : adolescence; after-school; emotional development;
latent growth curve model; new social risk; self-care children**
Student Number : 2012-21521